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 40%...OECD 평균 4배

금융기관 10건중 4건 퇴짜...2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아 높은 금리·자격 기준도 문제...조선·중소 건설업 타격

영암에 있는 한 조선기자재 부품업체 A사는 최근 시중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이 회사 대표 B씨는 “15년간 단 한 번도 대출금 상환이 늦은 적이 없었는데 지난해 매출이 떨어졌다고 단번에 거부해버리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조선 관련 업종이라고 하면 바로 손사래부터 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역 한 중견건설사는 자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분양 시장이 좋지 않고 제2금융권까지 집단대출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을 해줄 은행을 구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 건설사 대표 C씨는 “우리는 영업이익률이

10%에 가깝고 부채비율도 낮은 안정적인 회사인데도 대출 심사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과 건설업 등 최근 구조조정이나 취약업종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 ‘돈맥 경화’ 상황에 중소기업이 위기에 빠지고, 기업이 역시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OECD가 최근 펴낸 ‘중소기업 및 기업가 용어 2017’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OECD 회원국 및 주요국 24개국 가운데 한국의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이 40.9%로 가

장 높았다. 돈을 빌리기 위해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린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퇴짜를 맞았다는 의미다. 같은 해 OECD 평균은 한국의 4분의 1인 10.2%에 불과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거부율이 높은 것은 산업구조와 규제 강화 등 환경 변화 영향도 있었지만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출금리와 엄격한 대출 자격기준 등 낮은 관행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최근까지 이어져온 저금리 상황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다고 아우성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부에서는 경기불황이 장기국면에 들어가고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비 올 때 우산만져 베풀게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시중은행의 무리한 담보 요구 등 보수적 대출행태와 장래성에도 불구하고 대출없

으면 퇴짜를 놓는 보수적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남산단에서 금형 관련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D씨는 “중소기업의 재무상태가 크게 개선돼 신용등급을 비롯해 영업이익률 등이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인데도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은행의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와관련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신생기업) 등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대출 거부율 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면 정책 자금 등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은 부실 대출 우려로 중소기업 대출을 망설인다”면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제도와 연계해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52.97 (-2.33)	↓ 금리 (국고채 3년) 1.67% (-0.01)
↓ 코스닥 642.98 (-3.03)	↑ 환율 (USD) 1121.70원 (+1.00)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241개사 참여...호남권 박람회 내달 8일 DJ센터서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들이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연다.

현대·기아차는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7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개막했다.

채용박람회는 협력사들이 구직자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해 실제 채용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현대·기아차가 장소를 제공하고 행사와 관련한 각종 재정 지원도 한다. 올해로 6회째인 이번 행사는 부품, 판매, 설비·원부재 부문의 협력사 241개가 참여한 가운데 호남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차례로 열린다.

이날 코엑스에서 열리는 수도·충청권 박람회를 시작으로 6월 8일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박람회가 진행된다.

이어 6월 20일 울산·경주권(울산대

체육관), 29일 대구·경북권(대구 엑스코), 7월 11일 부산·경남권(창원컨벤션센터) 박람회가 개최된다.

박람회장은 면접 노하우 등을 강의하는 취업특강관을 비롯해 협력사 채용상담관, 협력사의 경쟁력을 알리는 동반성장관, 이력서 컨설팅을 받고 무료 증명사진을 촬영하는 부대행사관 등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아울러 청년 인재의 협력사 취업을 돕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의 홍보관이 별도로 운영돼 취업에 성공한 선배 수로자들이 직접 멘토링에 나선다.

구직자들은 현대·기아차가 개설한 협력사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hkjob-fair.incruit.com)에서 참가 신청과 현장 예비면접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올해 박람회장은 전국적으로 총 2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 다문화 문화교실 광주콩센터 전통음식 체험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29일 광주은행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2기 수강생들과 함께 광주 남구에 위치한 광주콩종합센터를 방문해 한국전통음식 체험활동을 가졌다.

〈사진〉

광주은행 다문화가정 문화교실은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날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인절미, 화전만들기 등 한국의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수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체험에 참여한 캄보디아 출신 시엠티는 “광주은행에서 마련한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참여를 통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고,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노후 대비하자”...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쇄도

국민연금이 가입할 의무가 없거나 의무 가입 나이가 지났는데도 노후에 대비하려고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스스로 국민연금이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가 4월말 현재 31만7800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 4만8843명, 여성 26만8957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이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거의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2011년 17만1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하고, 2012년에는 20만7890명으로 늘었

다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잠시 17만7569명으로 떨어졌지만, 이후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으로 증가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4월말 현재 31만1089명으로 임의가입자와 마찬가지로 31만명을 훌쩍 넘겼다. 성별로는 남성 10만388명, 여성 21만701명으로 여성이 많다.

/연향뉴스

4월말 현재 31만 7800명 전업주부 등 여성이 압도적

韓銀 6월 한달간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

한국은행은 동전의 재유통을 통한 화폐제조비용 절감을 위해 6월 한 달간은 행원협회 등과 함께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람이나 저금통에 모인 동전을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지폐로 교환하거나 입금하면 된다. 또 지폐로 교환하고 남은 동전은 금융기관에 비치된 ‘자투리 동전 모금함’에 넣으면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물가 상승과 사용 편의 등의 이유로 매년 상당량의 동전이 사용되지 않고 사람이나 저금통 등에 사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은은 매년 6억개 내외의 동

전을 새로 제조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국민 1인당 동전 보유량은 439개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만 동전 교환운동을 전개해왔는데 이를 통해 총 25억개(3400억원), 연평균 2억8000개의 동전을 회수했다.

이를 새로 만들려면 연평균 284억원의 제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연평균 610억원에 달하는 주화 제조비용의 46.5%를 절감할 셈이다.

한은은 지난달 20일부터 주요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동전을 구입하고 받은 잔돈을 선불카드에 충전 받는 ‘동전없는 사회’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연향뉴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기술전문기업 추가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개방형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수 역량을 보유한 기술전문기업(ESP)을 오는 6월 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모집하는 ‘기술전문기업’은 설계·해석, 시험·분석, 연구개발, 디자인, 임상시험, 시제품 제작 등 6개 분

야다. 기술전문기업으로 선정되면 R&D 제도 개선,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사업 참여, 연구개발서비스파크 조성 시 입주 우선권 부여가 지원된다.

희망 기업은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해 제출서류 및 첨부파일 양식 등을 다운로드 신청·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360-9151. /김대성기자bigkim@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시술 전

시술 후

시술 전

시술 후

대산 종합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짐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심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광주 광역시 북구 증음동 373-14번지 1층 광주역 뒤 증음삼거리 부근

010-8628-0482